

## 니-체와 現代文化

-그들의 生日을 記念하야-⑤

金亨俊

여기서 아포로의 世界가 나타났다. 아포로는 節約의 神이며 中庸의 神이다. 그러므로 狂暴한 生の 意志 野生的인 淫慾을 倫理的으로 節制하며 中庸을 維持하러 한다. 이러한 것은 그 自身 □□다. 그러나 盲目意志인 디오니소스의 世界에 살고 잇는 人間은 이 假象의 世界를 免할 수 업는 것이다. 이 時代의 아포로의 精神은 素朴한 호머~의 抒情詩로 表現되였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主活意志에 充溢하는 希臘人은 언제나 아포로의 假象世界에 머므러 살 수 업섯다. 디오니소스는 아포로를 侵入한다. 아포로는 이 侵入을 對抗하러 한다. 여기서 成立된 것이 트로아時代이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를 對抗하는 이 時代의 藝術은 아무런 目標도 絶頂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뒤 아포로와 디오니소스가 和解 統一하게 되였스니 여기서 아디카의 悲劇, 즉 希臘悲劇이 처음으로 成立된 것이다.

希臘藝術과 한가지로 音樂도 變遷해 왔다. 音樂은 元來 디오니소스의인 것으로 항상 生の 苦惱를 經驗한 抒情詩人에 依하야 產出된 것이나 도리아時代의 아포로의 音樂으로 假象化되였스며 다시 形象업는 리즈, 멜로되, 하-모니의 디오니소스의 音樂으로 되였다. 이러하야 抒情詩와 民族속에 나타난 音樂은 悲劇을 비저내게 되였스니 여기서 일은 바 『音樂으로부터 悲劇의 誕生이 불리워진 것이다. 悲劇의 核心은 合唱이다』 合唱은 디오니소스의 生の 悲劇을 나타내는 것으로 人間을 無我境에 引導하야 世界의 實在를 把握케 한다. 그러므로 悲劇은 디오니소스의인 것을 아포로의으로 形象化한 것이다. 悲劇의 根抵는 音樂이며 神話이다. 디오니소스의 音樂的인 狂暴한 生の 意志를 아포로의으로 救濟하러는대서 希臘悲劇은 誕生된 것이다. 이러한 希臘悲劇의 誕生은 希臘藝術의 最高峰이엇든 것이다.

그러나 希臘悲劇은 沒落하게 되였다. 그것은 悲劇에서 디오니소스의 音樂的 精神을 驅逐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유리피테스의 □□이 그 先峰이였다. 又

의 作品 가운데는 벌써 英雄이나 神話가 업서지고 日常人이 登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希臘悲劇은 凡俗化 民衆化됨으로서 沒落하게 되었다. 여기서 『□은 知이다. 無知뿐이 惡를 犯한다. 有識한 者는 幸福하다』는 소크라테스의 合理主義的 樂天貫은 悲劇을 보아내게 되었스니 悲劇의 沒落과 함께 希臘文化는 衰退한 것이다.

니-체에 依하여 近代의 獨逸文化는 이디오니소스의 悲劇을 客認치 못한다. 主觀的인 科學的 教養 그리하여 生活手段을 爲한 理性的 教養의 專門化는 디오니소스의인 偶然的 精神을 차츰 抹殺시키고 잇는 것이다. 이러한 科學的 教養을 가진 사람들은 그는 『教養俗人』이라하여 □□하였다. 그에 依하면 獨逸의 現想的 文化를 再建하는 때는 오직 希臘悲劇의 精神을 살리는데 있다. 悲劇詩人은 디오니소스의 狂暴한 生의意志 때문에 生을 苦惱하며 生의 悲劇을 맛본다. 그러나 그들은 이 苦惱와 悲劇속에서 오히려 偉大한 生을 肯定하게 된다. 悲劇的 英雄은 生의 苦惱가 深刻하면 할수록 그 苦惱를 超克하고 苦惱에 찬 悲劇的 生을 肯定한다. 아포로의인 것과 디오니소스의인 것과의 綜合인 悲劇에서 生의 肯定은 極致에 達한다 그러므로 悲劇은 生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苦惱를 通하여 肯定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希臘悲劇 가운데서 理想的 人間을 發見하였다. 偉大한 人間은 苦惱속에서 生을 肯定케 하는 藝術的 人間이 아니면 안되리라고 그는 斷定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理想的 人間으로서의 藝術的 天才로서 그는 當時의 希臘悲劇研究의 基礎우에서 近代의 樂劇을 創始한 와그넬을 極端으로 讚美한 것이다. 와그넬만이 多樣化, 個別화된 近代의 教養을 綜合시키며 假象的인 아포로의 世界로부터 世界의 實在를 把握하는 디오니소스의 精神을 獲得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디오니소스의 生의 苦惱를 通했지만 人間의 偉大한 生은 肯定된다는 것이다.